‘半 반등 기대’ 코스피 사고, ‘2차전지 과열’ 코스닥 팔았다

〈반도체〉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시장 행보
KRX, 코스피 5.51p⬇2491.00 마감
지난달 코스피 9조545억 사들여

코스닥시장선 올 1조9139억 팔아
매도 상위종목에 포스코홀딩스 등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51포인트(0.22%) 내린 2491.0에, 코스닥지수는 5.20포인트(0.63%) 내린 824.54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326.3원을 보였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엇갈린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으로 인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2차전지 과열 논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높아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51포인트(0.22%) 내린 2491.00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5.20포인트(0.63%) 하락한 824.54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외국인은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9조 545억원 어치를 매수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7805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에 더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환율이 높은 것은 경상수지 적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 등인데 이런 것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를 8조281억원 사들였다. 이어 현대차(1조1550억원), 삼성SDI(8430억원), 기아(5271억원), LG전자(4992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4735억원), 현대로템(4385억원), 삼성엔지니어링(3439억원), 하이브(3163억원), 현대모비스(3049억원) 등을 사들이며 대형주 위주의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1조9139억원을 순매도하는 등 매도우위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과열 논란을 겪은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2차전지 관련주인 포스코홀딩스(3조6754억원), 에코프로(1조711억원), 포스코퓨처엠(3815억원), SK이노베이션(3124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실적과 주가 간 괴리율이 커졌었다”며 “최근 실적발표가 나오면서 괴리율을 좁히는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순매수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피가 저점 근처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매수세와 매도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시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SG발 주가조작 논란 확산… 증권사 신뢰 ‘뚝’

키움 이어 유진투자증권도 연루
“CFD 위험성 고지도 미흡했다”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나서

“주가하락기, 공매도처럼 하락폭 확대
부작용 방지 제도 구체적 마련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증권사 임원들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판매해 온 차액결제거래(CFD)가 이번 사태의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키움증권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의 임원진도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증권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피해자들은 CFD 판매량에 비해 위험성 고지도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SG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기도 한다. 일부 증거금 납입으로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지분공시 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CFD 거래 잔액은 2019년 말 1조 2713억 원에서 2020년 말 4조 7807억원으로 급증하다가 2021년 말에는 5조 4050억원을 기록했다.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교보증권(6180억 원)이며, 다음으로는 키움증권(5576억 원), 삼성증권(3503억 원), 메리츠증권(3446억 원), 하나증권(3400억 원) 순이다. 이외 유진투자증권(1485억 원), DB금융투자(1400억 원), 한국투자증권(1126억 원)의 CFD 거래 잔액도 1000억 원을 넘겼다. 올해 1~2월 두 달간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대금은 4조 666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은 CFD 신규가입·신규매매를 차단했다. 하나증권도 CFD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했으며, KB증권은 1인당 거래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업종 전반적으로 CFD발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미수채권 증가 시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고, CFD 신규가입 중단 및 향후 금융위의 CFD 제도 개선 등으로 향후 CFD 관련 손익이 위축될 공산도 크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아파트값 한달새 2억⬆… 주택시장 ‘꿈틀’

용인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 157㎡
지난달 10.6억 거래 3월 대비 2.1억⬆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 보이는듯”

주택업체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최근 올초 대비 2억원 이상 오른 단지가 나타나는 등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주요 건설사는 늦췄던 분양 시기를 재점검하는 분위기다.

11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경기 용인시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 전용면적 157㎡의 경우 4월 10억6000만원(8층)에 거래돼 지난 3월 8억5000만원(4층)보다 2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서구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 84㎡의 경우 지난해 말에서 올초까지 5억9000만~6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3월 7억1000만원(30층)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확실히 작년 말과 올해 초와는 다른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자료에서도 ㎡당 수도권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2022년 11월 661만원 ▲2022년 12월 673.3만원, ▲2023년 1월 721.2만원 ▲2023년 2월 755.8만원 등 상승 추세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 하락,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LTV를 80%까지 허용,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 정책 기조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보인다”며 “내집 마련 수요자들은 브랜드 대단지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여름철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는 대어급 단지가 속속 분양한다. 그중에서도 오는 6월 롯데건설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은행2지구 1·2블록) 일원에 짓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84㎡(A, B, C 3개 타입) 1블록 1230가구, 2블록 903가구를 공급한다. 서해선 신천역이 가깝다. /이규성 기자 peace@

1.5%p 한미 금리차에도 外人투자금 유입

한은,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지난달 외국인투자금 32.5만 달러

올해 4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1.5%포인트(p)까지 벌어졌음에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채권 투자도 이뤄졌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3년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32억 5000만 달러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1억 8000만 달러)과 3월(8000만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순유입으로 유입 규모도 확대됐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금리는 소폭 상승한 반면 신흥국 금리는 대체로 하락했다.

지난 9일 기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52%로 전월 말보다 0.05%p 상승했다. 영국도 3.86%로 0.37%p 올랐다.

다만 주요 신흥국 금리는 대체로 하락했다. 인도네시아는 6.50%로 0.29%p 하락했는데,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브라질도 12.39%로 0.43%p 내렸는데 금리 정점 기대가 반영된 영향이다.

미국 달러화는 연준의 긴축 기조 완화 기대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미 달러화 지수인 달러인덱스(DXY)는 지난 9일 기준 101.6으로 전월 말보다 0.9% 하락했다.

파운드화와 엔화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영국 파운드는 1.262로 2.4% 오른 반면, 일본 엔은 135.2로 1.8% 하락했다. 파운드화는 영란은행의 긴축 기조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엔화는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기조 지속 기대에 약세를 보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DL이앤씨-메이사, 건설 디지털 트윈 MOU

DL이앤씨는 메이사와 ‘건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축 및 건설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DL이앤씨와 메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 분야 디지털 트윈 구축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분야에 적용하면 가상 공간에 현실의 ‘쌍둥이’ 건축물을 만들어 공정·품질·안전 관리부터 설계, 분양, 유지보수 등에 활용 가능하다.

양사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드론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 촬영 및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건설업계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영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기술담당임원은 “DL이앤씨는 건설정보모델링(BIM), 인공지능(AI), 드론 등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스마트 건설 솔루션 분야에 강점을 지닌 메이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트윈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